

2008년도의 면화 - 2008년도는 갈수록 가격 수준 10% 상승

2008년도 면화 년도(綿花 年度)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이며, 2008년도의 면화 시세 수준은 2007/2008년기보다도 10% 높은 수준으로 돌아갈 것 같다.

미 농무부(美 農務部)에 의하면, 2008/2009년도의 세계 면화 수확 예상(綿花 收穫 豫想)은 1억 1,643만 표(1표는 400파운드 기준)가 되며, 2006/2007년도와 비교하면 4.6% 감소된다.

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의 소비가 1억 2,716만 표로, 반대로 3.1% 증가하고 있다. 두 시즌(season) 전과 비교하면 950만 표를 공제한 수급이 타이트(tight)화 되어 상황을 밀어 올리게 될 것이다.

전전기(前前期 : 2006/2007년도)와 전기(前期 : 2007/2008년)를 비교하여 생산이 가장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 나라가 미국이다. 전전기의 2,159만 표가 전기에는 1,921만 표로 줄고, 금기(今期 : 2008/2009년)에는 1,450 표까지 떨어진다. 이런 현상은 대두(大豆), 소맥(小麥), 옥수수 등 곡물의 높은 시세가 면화로부터의 전작을 유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. 이와 같이 바이오 에탄올(bio ethanol : 사탕 수수나 옥수수의 발효로 만드는 알콜의 일종)을 많이 생산하는 브라질에서도 면화는 크게 줄 것으로 짐작된다.

세계의 면화 소비량은 1998/1999계부터 2006/2007계까지 연평균 5%의 페이스(pace)로 많아졌다. 그러나 세계의 경제 성장 속도가 줄어들고, 폴리에스터와 비교한 경우에 상대적인 비싼 느낌이 전계(前季)에서 금계(今季)에 걸쳐

안정적으로 돌아갈 것 같다.

전체적으로 보면 ① 950만 표 공제에 의한 수급의 타이트화(tight化) ② 원유가가 높이 오르는 등으로 합섬 원료가 오름 ③ 곡물가의 오름 등이 시황을 밀어 올릴 것으로 예상되어 전기(2007/2008)의 70 센트(cent) 수준에서 10% 오른 시황 레벨(level)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.♣